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종
작가·추리문학관관장

한국사회에서 작가들은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도 좋은 존재들일까? 수년 전 작가들의 수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작가들은 월 평균 수입이 2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지만 한국 작가들은 한 마디로 수입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다른 직업이 없이 순수하게 창작에만 매달려있는 전업 작가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빈계층에 속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관심을 끌지 못하며 우리 사회의 한쪽 구석에 있으니마냥 존재로 방치되어있다.

작가는 한 국가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외되어 있고, 버림받은 처지나 다름없이 하루하루

불쌍한 작가들

를 연명하고 있다. 문화는 한 국가와 민족의 혼과 얼이 배어있는 것이고, 작가는 자기 나라의 언어를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읽힌다.

문화가 없으면 언어가 없어지고, 언어가 없는 국가와 민족은 망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 언어를 이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세련되게 다듬은 사람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다. 작가들이야말로 주된 배를 달래면서 우리 언어를 살려온 주역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쓰레기처럼 방치되어있다.

아파트가 안 팔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법을 뜯어고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기를 쓴다. 그러나 작가들의 작품이 진열되어있는 책방들이 연달아 문을 닫고 출판사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눈 하나 까닥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작가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군사정권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민주화 투쟁으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가 하고 두

리번거린다. 정부나 국민들이나 염치가 없기는 막상막하이다.

한국에서는 작가라는 존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작가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가 먹고 살고, 활기에 차있는 경우가 수도무하다.

가까운 일본의 에치고 유자와에 가면가와바타가 노벨상 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을 집필했던 여관이 있다. 지금도 그 여관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가와바타가 작품을 집필했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 방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에치고 유자와를 방문하고 있고, 그 마을은 에치고 유자와라는 이름보다 아예 ‘설국’으로 더 유명해졌다.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변화가에는 제임스 조이스 동상이 서있고, 그 곁에는 그가 생전에 드나들었던 카페가 지금도 영업 중이다. 해마다 열리는 축제에는 그의 난해한 작품 ‘율리시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백 명씩 플라와 논문을 발표한다. 오스카 와일드, 버나드 쇼, 베케트, 예츠 등 세계적 문호들이 그곳 출신들이니 그들의 기념관과 문화적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거리는 하루종일 흥청거린다.

영국의 자존심,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

는 셰익스피어는 영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가 태어난 스트랫포드 어먼 에이번에는 셰익스피어 생가를 비롯해 셰익스피어 극장 등 그와 관련된 자취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도시 전체가 그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가 도시를 먹여살리고 있다. 문화에 대한 자존심도 없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런던에는 설콧홀즈 박물관이 있다. 홈즈는 코난 도일이 창조한 탐정으로 가공 인물이다. 그런데도 영국인들은 그를 실제 인물처럼 만들어 박물관까지 만들어놓았다. 홈즈팬들은 홈즈가 가공 인물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리의 세계에 빠져보기 위해 비싼 입장료를 내고 그곳을 방문한다.

파리 세느강변에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라는 한 세기 가까운 연륜을 지닌 조그만 고서점이 있다. 1920년대 헤밍웨이, 피츠제랄드, 제임스 조이스, 헨리 밀러 등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잃어버린 세대의 작가들이 방황하던 시절 그 책방을 사랑방처럼 드나들면서 그들이 신세를 졌던 곳이다. 그 고서점은 오늘날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작가는 과연 필요 없는 존재인가?

종교칼럼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영국의 더 타임스지 서울트파울 앤드류 살먼(Andrew Salmon) 기자는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데 열정을 바친 외국인이다. 그는 2010년 한국 전쟁에 관한 책인 ‘마지막 한 발’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 책은 살먼이 2년간 임진강 전투에 참여했던 50명을 인터뷰해 펴낸 ‘투 더 라스트 로드’(TO THE LAST ROAD)의 한국어판이다. 1951년 4월22일 임진강 전투,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이 영국군 29여단의 거점을 공격, 3일 만에 후퇴명령을 받았지만 퇴로가 차단된 750명의 글로스터 대대가 끝까지 처절하게 저항했던 싸움의 생생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쓴 기사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떤 병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1951년 1월3일 이른 새벽 한국전에 참여한 영국 병사 데이비드 스트라찬(David Strachan)은 경기도 고양시 인근 들관에서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최전방 참호 속에 있었다. 갑자기 그의 코앞에 중공군이 불꽃 나타났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총을 당겼다. 적병의 몸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참호 속으로 떨어졌다. 이 영국 병사는 자기보다 더 어려 보이는 중공군 병사가 바로 자기 밑에서 신음하며 4시간에 걸쳐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한국전이 끝나고 후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 전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악몽을 꾸다가 누군가 침실로 걸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 일어나게 된다. 60년 전 그가 죽던 중공군이 피 묻은 군복을 입고 그의 발치에 서 있었다. 그 후 스트라찬은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중공군 병사의 방문을 받아야만 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한국 방문을 권했다. 그에게 가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한국이었다. 그러나 그는 치료를 위해 한국에 돌아왔고 그가 기대한 한국과 전혀 달라진 새

로운 한국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전쟁과 주검, 배고픔과 전혀 다른 변형한 한국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한국 방문도중 하루는 벨트 버클이 고장 나, 가죽 수선 집에 들어갔다가 그가 참전 용사임을 알게 된 주인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수선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 집을 나오면서 자기 존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몽클한 어떤 감동과 함께 자기도 모를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내가 결코 헛된 일을 위해 이 땅에서 피 흘려 싸운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중공군의 환영은 다시 그를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공립 벽면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 이 선언문구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면에 현재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가슴속에 울려 퍼져야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희생된 결과이다’라는 후회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에 참가하여 희생된 미군 사망자만

5만4246명, 한국군을 포함하여 유엔군 사망자는 모두 62만8883명, 부상자는 미군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는 106만4453명, 실종자는 미군 8177명, 유엔군 전체는 47만26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라크전 미군 사망자가 3000여 명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희생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이 잃은 경제적 손실은 가히 계수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괴 흠림의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평화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민족적 가치이지만 그것은 자유 수호에 대한 투철한 정신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한국전쟁 후 반세기 가 지났어도 한반도는 총성만 멈춘 전진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점점 잊혀져만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한 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고



유종성
광주시 대변인

최근 막을 내린 TV드라마 ‘직장의 신’은 회사의 부장님도 짤배라는 슈퍼갑 계약직 미스김과 그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일과 사랑을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려내 방송 내내 인기를 끌었다. 미스김이 직장 상사의 일방적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 업무 중에도 정시가 되면 당당하게 퇴근하는 모습 등은연중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K0편치’를 날리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주었다. 또 매일 밤 늦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던 아내와 자식들, 비정규직을 은연 중 차별했던 정

‘을(乙)을 위한 행정’ 광주시가 나섰다

규직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을 한심한 눈으로만 봤던 이들에게는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드라마 ‘직장의 신’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갑을문화, 갑을관행에 대한 되돌아보기에서 시작했다. 갑을관계의 뿌리는 권위주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인 체계가 강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문화는 ‘권력이 있는 사람’인 갑이 그렇지 않은 을에게 여러가지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라면상무와 빵사장, 육우 유 사건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계기로 ‘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갑의 횡포는 우리 사회에 배어있는 권위주의나 수직적인 주종관계의 약자에 대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은 갑의 횡포에 우는 을들의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반성장과 상생, 양극화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도 행정기관부터 숭신 수범하기 위해 을을 위한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평소 소통을 강조한 강운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강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5기 전국 시도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과 소통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 특히 주민소통분야는 2년 연속, 웹소통 분야는 3년 연속 SA등급을 받아 소통행정외 모범이 되고 있다.

강 시장은 “생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야말로 을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라며 “을을 위한 행정으로 과감하게 고쳐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모든 시정의 가치를 시민이 행복할 참조도시를 만드는데 두고 지난 3년간 열심히 뛰어왔다. 하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직도 행정의 각 분야에서 억울해하고,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직소민원실을 ‘을을 위한 직소민원센터’로 개편하고 행정개선청구를 개설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는 일차적으로 인권옹호부스맨들이 판단하면 그 결과를 존중해 행정에 권고할 경우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청의 각 실·국과 산하 기관, 시 산하 공기업은 물론 가능하면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과감하게 고쳐나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위주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예의를 다하며 존중해주는 것이다. 그 존중의 바탕에 상대를 향한 배려가 깔려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행정기관과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소통한다면 그 사이에 ‘갑과 을’이라거나 ‘권위주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社說

‘전두환법’ 등 국회 통과, 이제 실행에 옮겨야

광주시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두환 추징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사회 정의를 위한 진일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정 시효를 늘리고, 추정 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액의 추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그 대상도 확대됐다. 또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

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올해 추진키로 했던 5·18 기념곡 지정 공모 사업을 사실상 철회했다. 결의안은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후 33년 동안 추모행사 등에서 언제나 울려 퍼졌던 상징적 노래”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깃든 만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날 그대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실행하지 않으면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정부라면 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전두환 추징법’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검찰과 국제청은 전세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는 물론 전두환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그제 바로 쓰러진 법치와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장애인 수화통역시스템 무용지물이라니

듣고 말하기가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위험에 처했을 때 상담을 위한 ‘화상 수화통역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가 전혀 안 돼 장애인들마저 시스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운영기관 종사자들도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과 서구청 민원실, 주민자치센터에는 장애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화상 수화통역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용 안내문이나 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시스템이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장착된 경우가 적지 않아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많은 월세까지 들어가면서 왜 설치했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장애인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을 개발된 장소에서 하고 있어 장애인의 기초적인 인권보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상 수화통역시스템은 유용성이 매우 낮고, 사용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사려 깊은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학교 전 직원이 학생을 성폭행한 ‘도가니 사태’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방치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에 따라 당하기 쉬운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 도입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어렵게 도입된 화상 수화통역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말만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가 돌출하면 반쪽짜리 관심과 관심이 식어 버리는 게 현주소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은 사소하지 만 현실적인 분야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가능하다. 화상 수화통역시스템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無等鼓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여배우 사진을 침상에 붙이거나 철도안에 넣고 다니는 기억이 선명할 것이다. 이른바 ‘핀업 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배우들의 사진을 막사에 핀으로 고정하면서 유래한 말이다. 핀업 걸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잠시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존재였다.

핀업 걸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은 마릴린 먼로였다. 군인들이 좋아할 만한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미모, 노래 실력까지 갖춰 전 세계 군인들이 그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 정도였다.

1954년 2월 18일 마릴린 먼로가 주한 미군 위문 공연을 위해 여의도에 내리자 600여명의 사병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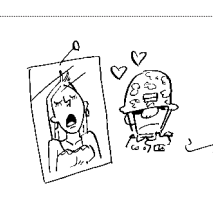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인기 있었던 핀업 걸 3인방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과 영화배우 문정숙, 최은희였다. 이난영은 애절한 노래로, 문정숙은 육감적인 몸매로, 최은희는 미모와 세련된 행동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 중에서 최은희가 단연 1위였는데 그녀는 마릴린 먼로와 동갑내기로 먼로의 한국 위문공연에도 동행하는 인연을 맺었다.

월남전 중에는 트로이 카로 볼리던 윤정희·문화·남정임과 김지미가 인기 핀업 걸이었다. 이때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위문 공연이 보편화되면서 가수 김세레나가 애교섞인 목소리와 춤으로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배우로서 시작된 핀업 걸은 이제 남녀를 불문하고 연예인 단추를 절반이나 까지 않고 젓가슴이 보일랑말랑 하는 것이 사병들의 흥분을 더욱 돋우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메이저리그 야구스타인 조 디마지오와 신혼 여행차 일본에 온 먼로는 첫날 밤도 처리지 않고 한국으로 건너와 공연하는 열정을 보였다.

핀업 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영 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 화 서 부 2200-661 문화체육부 2200-621	광고미케팅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제 목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마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해 투명우산 사용용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장마철. 기상청에 의하면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강수량도 전년에 비해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보다. 하지만 장마철이 되면, 특히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등하굣길 빗길 교통사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TV 뉴스에서나 온라인상에는 “비 오는 날 어린이 안전예방책”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는 밝은 옷을 입어야’, ‘우산 대신 우비를 입어야’ 등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린이 입장에 맞는 안전용품이 아닌 성인 기준이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책가방을 메고, 우산은 얼굴 가까이 끌어당기고 나서 앞을 내다볼 틈도 없이 뛰어들어간다. 운전자들 또한 학교 앞에 바짝 주차하여 아이를 내려놓은 뒤 꺼어드는 다른 운전차량을 향해 경적을 연신 눌러대는데, 학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 다반사다.

평상시 비 오는 날 아이들에게 안전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비 오는 날에는 자

녀들에게 바깥이 보이는 투명우산을 쓰도록 하면 어떨까? 자녀들이 비 오는 날에 투명우산을 쓰도록 한다면, 뛰어도 비 내리는 날 추위를 덜러보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우리 자녀들이 비 오는 날에도 사고 없이 학교에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도연·염임국 확산민 독선리